

광주일보·KBC 총선 후보 초청 토론회 <광주 동구>

‘동구 불명예’ 책임론 따지고 ‘대리등록’ 진실공방



■ 김관희(통합진보당)

“국·공립 보육시설 30% 이상 늘리겠다”



■ 김강열(무소속)

“교육정책 바꾸고 사회보장제 개선을”



■ 박동수(무소속)

“공공기관 청년 채용 의무율 3~5%로”



■ 박현(무소속)

“서비스산업 육성 비정규직 적극 해결”



■ 양형일(무소속)

“산적한 동구 현안들 강력한 추진체 필요”



■ 이병훈(무소속)

“야문화전당 사업 통해 일자리 최대한 창출”

◇ 모두 발언

▲ 양형일(무소속)=동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.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를 섬기겠다...

▲ 김관희(통합진보당)=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동구와 동구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...

▲ 김강열(무소속)=실추된 동구의 정치 현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 때문에 범시민후보로 추대됐다...

▲ 박현(무소속)=기존 정치권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. 반드시 새로운 시대, 새로운 정책으로 새출발하겠다...

▲ 박동수(무소속)=이번 선거에서 낡고 오래된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인을 심판하고 바꿔야 한다.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정치개혁과 정당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달라...

▲ 이병훈(무소속)=그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당선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. 저는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...

◇ 공통 질문(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은? 자신의 강점은?)

▲ 김관희=대중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갔다. 주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다...

▲ 김강열=소통과 혁신이다.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은 불통의 시대였다. 저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다...

▲ 이병훈=정치인은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 풀수정치를 해선 안 된다. 정치의 정치, 소통의 리더십, 주민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...

▲ 양형일=자기 희생이다. 또 자기 능력을 알맞게 배치, 상대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능력이다. 점차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데, 여러 가지 리더십의 강점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...

◇ 후보자 주도 토론

▲ 김강열→양형일=이번 동구 투신사건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몸통, 양 후보는 원인제공자라는 말이 있는데, 어떻게 생각하느냐

▲ 양형일=우리 측에서 제보했다는 것.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 하는데,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

▲ 김강열→이병훈=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와 관련, 이 후보가 당시 시민·사회단체의 말에 귀를 닫고 문화관광부 말만 들었다는데

▲ 이병훈=모든 기록이 다 있다. 이 문제와 관련



지난 23일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주최한 광주 동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토론회에 참석한 6명의 후보가 사회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. 왼쪽부터 양형일·김관희·김강열·박현·박동수·이병훈 후보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해선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다.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. 시간이 허락된다면 모든 자료를 보여주겠다.

▲ 박현→양형일·이병훈=이번 선거인단 모집과 정서 대리등록을 안했느냐

▲ 양형일=연좌제처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공세다. 대리등록은 하지 않았다.

▲ 이병훈=모바일 투표제의 경우 자신의 동의 없이 참여가 불가능하다. 대리등록은 적정한 표현이 아니다. 모바일 투표를 위한 동원선거가 문제다.

▲ 박동수→박현=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은

▲ 박현=청년일자리나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. 제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.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.

▲ 박동수→이병훈=남북관계 해법은

▲ 이병훈=햇볕정책처럼 유화 정책을 펴야 한다. 문화적 교류가 많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개성공단 활성화·금강산 관광 등 이를 토대로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시나브로 완화시켜야 한다.

▲ 이병훈→양형일=박주선 의원의 회견문을 보니,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다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, 어떻게 생각하느냐

▲ 양형일=유족의 요구나 구속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시 나서겠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.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시비하고 싶지 않다.

▲ 양형일→김관희=30대 주부보 알고 있는데, 육아·보육·사교육 문제 해결책은

▲ 김관희=우선 육아 돌봄서비스가 충족돼야 한다. 국공립 보육시설을 30% 이상 늘려야 하며, 아바

육아 할당제 도입,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필요하다. 사교육이 왕성한 이유는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. 관련법을 제정,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.

▲ 양형일→김강열=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 2년 가까이 허송세월했잖나. 당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

▲ 김강열=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.

▲ 김관희→양형일·이병훈=당선된다면 복당할 것인가

▲ 양형일=선거 이후 유권자들을 만나 상의하겠다. 유권자들이 복당을 원하고 아권연대를 통해 대선 승리에 기여해달라고 한다면, 그 판단에 따르겠다.

▲ 이병훈=동구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. 복당 여부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.

◇ 공통 질문(청년실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은?)

▲ 박동수=청년실업률이 6.3%다. 청년고용을 위해선 공공기관·대기업 등에서 공공기관 채용 의무율을 3~5%까지 확대해야 한다. 사회공공서비스부담도 확대,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.

▲ 이병훈=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다. 다시 말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.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.

▲ 김관희=저는 청년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. 통합진보당에 힘을 실어 달라. 새로운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들어 바꿔나갈 것이다.

▲ 김강열=미래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. 현 제도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. 청년고용할당제 등 사회적 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.

◇ 마무리 발언

▲ 박현=민주당이 동구를 무공천하면서 주권재민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왔다. 이번 동구 투신사건에 대한 공판결과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.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.

▲ 박동수=이번 투신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도 유권자도 웃을 수 없었다. 제 꿈이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.

▲ 이병훈=동구 발전의 동력은 바로 아시아문화전당이다. 이런 정치를 바꾸고 판을 바꿔야 한다. 정치·소통·공감의 정치를 하겠다. 동구를 살릴 전문가로서 준비돼 있다.

▲ 양형일=동구의 많은 일감을 감당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,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후보가 누구인지 잘 알 것이다. 그간 행정확대로서 동구의 문제와 해법이 무엇인지 꾸준히 모색해 왔다. 성실하고 겸손하게 일하겠다.

▲ 김관희=이번 투신 사태는 민주당 독점의 결과다. 동구 정치이념 신선허기 바뀌어야 한다.

▲ 김강열=일부 후보들이 헌신짝 버리듯 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. 도의도 없는 이들에게 동구를 맡게겠느냐. 동구의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. /정리=이종형기자 golee@kwangju.co.kr

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Europe, Southeast Asia, and other regions, including flight and hotel details.

※당사는 관광진흥법, 소비자보호법, 중요고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준비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. ... (small print text)